

“한은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발전을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와 차별 없는 지역인재의 고른 등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5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219차 월례회의에서 “전라북도 국가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토대로 금융산업 특화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재개가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며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 업무 재개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전북 금융기관은 현재 화폐수급 거래를 위해 광주전남본부와 대전충남본부를 이용할

전북시군의장단협, 건의문 채택

수밖에 없어 막대한 운송비용과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어느 지역보다 화폐수급 업무 재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호남권의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본사, 행정기관이 광주전남 지역에 90% 이상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전북 인사 확대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내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협의회가 인사출대 정책 개선을 주장하

고 나선 것은 협의회가 구성된 지 2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최근에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개각 인사에 200만 전북도민은 또다시 이어지는 전북 무장관 시대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와 실망을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협의회는 또 “전북도민들은 이번 개각을 앞두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탕평개각 건의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다’며 ‘도민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도민들은 이제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국정기조까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진단한 뒤 정부의 차별적 인사정책에 큰 우려감을 나타

냈다. 이어 협의회는 “역대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정부의 편파 인사정책은 시대의 발전을 퇴보시키는 독선적인 이집이자,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반민주적 형태”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박근혜 정부의 전북출대 인사는 지역 예산확보와 정책추진에 소외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의 희망의 싹조차 사라지게 만든다”면서 지역차별 인사가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명지 회장은 “전북지역경제에 근본이 되는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 업무 재개와 정부의 인사정책뿐만 아니라 예산분배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골적인 전북차별을 즉시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신뢰 정책을 실행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 모래내시장서 ‘치맥가맥 페스티벌’ 열린다

전주시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발길을 끌어들이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주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손길선)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모래내시장길에서 치맥가맥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모래내시장의 생동으로 뒤흔어 먹어도 맛있는 치킨과 전주의 명물, 가게매주를 축제의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치킨과 신선한 맥주 외에도 모래내시장 상인들의 회의를 걸쳐 선정된 먹거리 등이 판매되며 찾아가는 음악회, 7080 락콘서트, 뽕짜가요제, 댄스경연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보건소, 쯔쯔가무시증 ‘감염주의보’

전주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의 유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을철을 맞아 야외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국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대표적인 질병으로, 국내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로 9월에서 12월 사이에 연간 환자의 90% 이상이 보고되는 전형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주요 매개체는 활순털진드기와 대일털진드기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남서부지역에 서식하는 활순털진드기의 분포지역이 확대되고 개체수가 늘면서 전국 발생건수가 지난 2011년 5151건에서 지난해에는 951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외 활동 후 10일~12일이 지난 후 고열과 두통, 오한 등의 감기증상과 피부발진, 가피(검은 딱지)가 있을 경우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해야 하며,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찰을 꼭 받아야 한다. /김영재 기자

‘전주 첫 마중길’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 참여 줄이어

5732만6000원 성금 모금
헌수 참여사연 각각각색

전주시가 전주역 앞 대로에 전주의 첫인상을 바꿀 ‘전주 첫 마중길’을 조성하는 가운데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유일여고 유일희망나비 자율동아리 학생들은 이날 전주시에 전주 첫 마중길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유일희망나비는 유일여고 학생들로 구성된 자율동아리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부하고 인문학적 글쓰기를 통해 해마다 ‘날아라 나비’라는 책을 발간하고 있다.

유일여고 학생들은 지난 10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공개 증언한 고(故) 김학순 할머니를 기리는 평화비를 풍남문 광장에 건립한데 이어, 전주 첫 마중길에도 유일희망나비의 평화나무를 기증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희망나무 헌수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전주 첫 마중길 조성을 위한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에는 지난 5월 1호 참여기업을 시작으로 기업과 단체, 일반 시민들의 기부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말종위기의 야생동물인 수달(천연기념물 제 330호) 보호 운동과 전주천의 깨끗한 생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25일 전주시청을 방문한 전주유일여고 유일희망나비 자율동아리와 수수달달 컨소시엄 최경화대표, (주)완암산업 정호순대표가 김승수 시장에게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있는 기념품을 제작해온 ‘수수달달 컨소시엄’의 최경화 대표는 전주시 거리 만들기에 일조하기 위해 100만 원을 전달했으며, 도로시설물을 생산하는 (주)석환산업 정호순 대표도 기업의 발전과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400만원을 전달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을 담은 시민희망나무 헌수 참여 사연도 있다. 익명의 한 여성은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자녀의 짧은 생애를 첫 마중길에 조성되는 나무가 아들의 이름이 달린 명찰을 달고 대신 이어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처럼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 참여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후원에 참여한 개인과 기업, 단체 등은 모두 35곳으로, 총 5732만6000원이 모금됐다.

시는 하루 평균 7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전주역 앞 백제대로를 기존 차량위주의 도로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걷고 머물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현재 편도 4차선으로 돼있는 차로를 3차선으로 줄이고, 중앙에 폭 15~20m의 광장에 느티나무 250그루를 심어 사람이 물리는 이벤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다. 광장에 조성되는 명품숲은 출생·입학·결혼·취업 등을 기념하는 가족기념식수와 기관, 단체, 기업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헌수운동을 통해 도시공간의 주인인 시민들이 함께 심고, 가꾸고,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 열리는 FIFA U-20 월드컵의 성공 개최와 개막전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주시의회와 협력해 추경예산 11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총 사업비 60억원 중 37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맑은물사업본부 차화정 연구사, 환경공학박사 취득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은희영)에서 환경연구사로 근무하는 차화정(49세)씨가 환경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차 화정연구사는 지난 25년간 물 담양은 수돗물 분야의 전문성을 담은 그간 마셔도 되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잔류염소와

소독부산물물을 제거하는 포기장치의 탈기특성을 연구, 민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음용방안을 제시한 ‘단순 포기장치를 활용한 수돗물의 소독부산물 제거와 탈기특성에 관한 연구’로 최근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감사원장 표창

전주시와 전주시민이 함께 차리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 감사원 모범사례에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한다.

전주시는 올해 감사원이 실시한 전주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업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취약계층 결식아동·청소년의 아침격정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6일 감사원 대강당에서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원장 표창으로 전주시의 밥 굶는 아이없는 엄마의 밥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정책임을 재차 입증하게 됐다.

민선7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첫 결재 사업인 엄마의 밥상은 ‘약자 우선,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 결식아동·청소년에게 아침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120세대 183명으로 시작한 엄마의 밥상은 전국 곳곳에서 답지한 시민들의 후원과 개인 정기후원, 기관 등의 성금이 이어지면서 현재 180세대 277명으로 대상이 확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처음에 행정이 주도했으나 전주시의 시책사업에 그치지 않고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시와 시민이 함께 차리는 엄마의 밥상’으로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엄마의 밥상은 지난해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우수정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